시민과 함께 2019 / 7월 4주차

■ 연구원 소식

○ 문화교양강좌『사진으로 역사읽기』완료(6월 3일~7월 15일)

6월 3일 시작된 <사진으로 역사읽기> 교양강좌가 8회차 강좌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두 달 여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 시간을 나눠주신 장근범 운영위원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진의 기술이 아니라 사진이 지닌 역사성과 인문학적 의미를 다양한 시선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다양한 시민문화강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진으로 역사읽기> 7~8차 강좌 모습

○ 연구원 회원의 날 및 개원 기념행사 안내 (8월 31일 ~ 9월 1일)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야경

2006년 9월 2일 공식적으로 대문을 열었던 우리 연구원이 어느덧 열세 살이 되었습니다. 오는 "**8월 31일(土)~9월 1일(日) <1박 2일>**"에 걸쳐 회원의 날과 개원 13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원의 날은 장소는 "**전주전통문화연수원**"입니다.

우리 연구원 회원인 김순석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은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이어 받은 전주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인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리는 개원 13주년 회원의 날은 전통문화와 역사를 찾아보는 교양 강좌와 향음주례(鄕飮酒禮) 등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 왕기석 원장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준비되어 있으니 부디 함께하시어 경향각지의 좋은 기운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빌겠습니다.
개원 기념 회원의 날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추후 지속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연구원에서 참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 유선전화(063-286-3005)나 사무국장(010-6275-0409)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역사 속의 오늘

司法部의 司法府 선언 (1971년 7월 28일)

일제강점기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날린 김병로는 대한민국 초대와 2대 대법원장을 역임하고 1957년 퇴임했다. 그가 현직에 있을 때 사법부는 외풍을 받지 않고 비교적 편안하게 신념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김병로 퇴임 이후 그의 후임들은 그만한 역량을 가지지 못했고 자연히 사법부의 독립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5.16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군부 세력은 집권 직후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통해 모든 법관을 퇴임시키고 재임용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그 결과 기존의 법관 가운데 47명은 의원면직되었고 5명은 다시 임명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가 군인으로 구성된 혁명검찰부와 혁명재판소를 설치하여 혁신계 정당, 사회단체 관계자, 교원노조 관계 인사들을 용공분자로 몰아 처단했다. 그 뒤로도 한일회담 항의 시위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불만을 품은 무장군인의 법원 난입(1964), 동백림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비난하는 괴전단와 괴벽보, 익명편지(1968) 등 군사 정권의 사법부 흔들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사법부와 정권의 갈등은 사법부가 정부의 입장에 반해 징발보상 관련 법 등에 위헌 결정을 한 것에 뒤이어 대법원이 소위 '이중배상 금지' 라 불리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를 위헌으로 결정했을 때 극에 달했다. 또한 사법부가 잇단 시국 사건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것도 박정희 정부를 자극했다.

1971년 7월 28일 새벽, 서울지방검찰청의 이규명 검사는 제주도로 출장을 나가 피고인 측 변호인으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이범렬 판사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범렬 판사가 여관비나 식대 등의 향응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당시 법원 예산의 부족으로 출장비는 출장 신청인(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였던 점, 당해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지급한 돈이 통상의 출장의 경우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이범렬 판사가 반공법 위반 사건을 포함된 사건들에 무죄를 선고하거나 선고 유예를 했다는 점에서 이는 검찰 측의 보복 조치로 판단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들은 항의의 의미로 사표를 제출했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들도 이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차 사법 파동의 시작이었다.

최초 구속영장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 기각되었으나 검찰은 다음날 새벽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록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나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들은 결국 사표를 제출하였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들과 함께 '사법권 수호 결의문' 을 발표하여 사법권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곱 가지 요소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8월 3일 대법원판사회의 이후 잠시 소강 상태였다가 개선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서울형사지법과 서울민사지법이 다시 성명을 발표해 검찰 관계자의 처벌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반발하자 다시 사표 제출이 연이어져 8월 말까지 법관 150여 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전국 판사 정원이 450명이었던 것을 볼 때 1/3이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다. 실제야 어떻든 뇌물수수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들의 '제식구 감싸기' 로 보일 수 있었고 거기다 피고인이 반공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색깔론까지 덧씌워졌다. 8월 27일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의 사표 철회 호소를 계기로 줄줄이 법관들의 사표는 철회되었고 사법권 독립 요구는 흐지부지 되었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이범렬 부장판사는 파동이 마무리 된 뒤 의원면직되었고 사법파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송명관 서울형사지방법원장은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좌천되었다가 의원면직되었다. 소장파 판사로 사법권 독립과 검찰 측의 인책 요구에 앞장섰던 홍성우, 김공식 두 판사도 사표를 제출하였다. 반면 검찰 측 관계자는 잠시 지방으로 좌천되기도 하였으나 1년도 되지 않아 청와대 등 주요 요직으로 복귀했다.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되자 박정희 정권은 사법 파동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사법부의 독립을 완전히 박탈했다. 헌법위원회를 만들어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빼앗았고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의 파면과 임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했다.

사법 파동 전까지만 해도 중앙정보부도 법원을 어려워하는 편이었고 법원도 중앙정보부나 경찰의 눈치를 봐서 그 위세가 무서워서 할 것을 못 한다든가 하는 분위기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사법 파동의 실패 이후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유신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기 시작했던 1971년 7월 28일, 행정부의 일개 부처로 취급되던 司法部 판사들이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을 주장하며 司法府라 외쳤으나 그 목소리는 유신정권의 천장을 뚫지 못하고 사그라들었다.

■ 천년 암자에 오르다

원효의 사랑이 담긴 소요산 자재암, 다섯 번째 이야기 – 물빛맑은 선녀탕

유영봉(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나한전의 왼쪽에 설치된 계단이 끝나는 즈음이다. 이정표가 오른쪽으로'선녀탕'을 안내한다. 여기서 직진하면, 하백운대를 거쳐 능선을 타고 상백운대와 의상대를 거쳐 공주봉으로 가는 등산로다.

그러나 소요산 자체가 암벽으로 뒤엉킨 산인 데다가, 거죽에 잔돌이 흘러내려 능선 쪽으로 뻗은 등산로를 타기란 쉽지 않다. 겨우 해발 440m라고 얕보기 쉬운 하백운대는 매우 가파르다. 능선쪽으로 오르려면, '소요'를 넘어 본격적인 등반 차림과 자세가 필요하다.

자재암을 품은 하백운대는 빙 둘러 흘러내린 의상대와 공주봉을 마주 보는 하얀 바윗돌과 노송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봉우리다. 잠시 땀방울을 식히며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을 느껴 보는 곳이기도 하다. 백운대란 이름처럼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가는 날의 운치가 더욱 좋다.

등산로의 절반을 지나야 만날 수 있는 의상대 역시 조망이 매우 좋다. 특히 소요산역에서 자재암을 잇는 길가의 단풍나무가 붉게 타오르는 가을이 되면, 붉은 페인트를 엎어 놓은 듯한 장관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원효스님과는 떼래야 뗄 수 없는 의상법사(625~702)이기에, 이곳에서도 의상대란 이름 하나를 얻었다.

공주봉은 요석공주 때문에 새로 이름을 얻었으니, 본래 이름은 마지봉이었다. '마지'란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일컫는 말로, 봉우리의 둥그스름한 모양이 마치 고봉으로 푼 밥사발처럼 생겼다.

선녀탕 仁者는 樂山이요 智者는 樂水라 했거늘...

능선으로 오르는 길을 접어 두고, 나한전 위쪽에 선 이정표의 지시에 따라 오른쪽으로 옥류폭포 상단부를 거쳐 20~30분 걷다 보면 선녀탕에 이른다. 도중에 보이는 암벽들도 기기묘묘한 형상으로 절경을 이루지만, 그 아름다움의 핵심은 단연 선녀탕이다.

선녀탕은 소요산의 수석이 빚어낸 천연의 욕조다. 선녀탕은 위쪽에서 맑은 물이 푸짐하게 흘러내린다. 아래쪽에는 한 사람이 들어가 편히 기대고 누울 만한 공간이 열렸다. 골짜기 바윗돌이 대체로 길쭉하고 둥그스름하게 패이면서, 마치 욕조처럼 생겼다. 기암절벽을 타고 내려온 상큼한 물줄기는 잠시 이곳에 고였다가, 다시 아래로 흐른다.

선녀탕을 이루는 주변 바위들의 색깔은 대부분 짙은 흙빛이다. 물이끼가 새파랗게 한 몫 거들고, 암벽에 팬 주름은 커튼처럼 늘어졌다. 여기에 백옥처럼 하얀 피부를 지닌 선녀 하나가 나신으로 눕는다면, 화사하기 이를 데 없는 장면이 연출되리라. 마치 그런 장면을 미리 염두에 두고 파내기라도 한 듯, 선녀탕은 하늘이 주신 절묘한 빛깔의 형태다.

행여 갑작스런 내 방문에 미처 옷가지를 챙기지 못한 하늘나라의 선녀 하나가 어딘가 숨어 있을까 싶어 자꾸만 두리번거리게 되는 곳이다.

다음 주는 “누구나 함께하는” <설봉산 영월암> 첫 번째 이야기 “이천의 설봉공원”으로 찾아오겠습니다.

■ 후원사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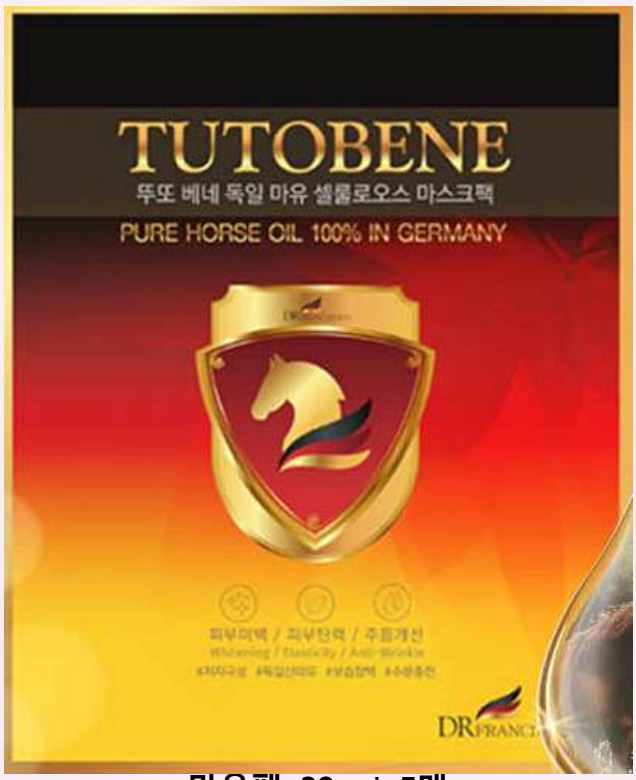
★ "닥터프란체스코 마유(馬油) 제품" 안내

우리 연구원 회원이며 독일에서 활동하는 김진경 회원이 독일현지에서 마유 원액을 직접 생산하여 한국 화장품업계에 공급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원의 운영을 돕고자 시중 보다 높은 함량의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 유통과정 없이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드립니다.

마유는 그 어떤 원료보다 안정성 있게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며 아토피 피부나 피부 트러블에도 효과적입니다!

◎ 마유 팩 효 능

- 피부 밸런스를 맞추어 건강한 피부로 가꾸어 줍니다.
- 피부 노화 및 유해 환경(공해, 자외선, 담배연기 등)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줍니다.
- 눈에 띄게 맑고 빛나는 피부톤으로 가꿔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 마유팩 25g * 5매 >	 **< 마유팩 30g * 5매 >**
◇ 시 중 가 : 1만 5천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4만 5천원 **◇ 연구원 판매가 : 2만원**

◎ **마유 샴푸 및 바디워시 효능**

- 가려움 예방 및 피부 각질제거
- 두피관리 및 머릿결에 영양 공급
- 피부 활력 및 보습진정 효과

◎ **마유 세럼 효능**

-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
- 고운 피부결과 화사한 피부톤 지원

 < 마유샴푸 및 마유 바디 워시 >	 **< 마유 세럼**
◇ 시 중 가 : 2만 9천원 ◇ **연구원 판매가 : 1만원**	◇ 시 중 가 : 6만 9천원 ◇ **연구원 판매가 : 3만원**

◎ **시중가는 현재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나 연구원을 통해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만나 실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수익은 전액 연구원에 기부됩니다. 좋은 기운을 나누는데 사용하시는 기분 좋은 소비에 함께 해주시길 빌겠습니다.**